

| 국어는 이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파이널Ⅱ 제1차 예비평가 정답과 해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Ⅱ 제1차 예비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 형

공통과목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㉓	2	18	㉒	2	35	㉕	2	35	㉒	2
2	㉑	2	19	㉓	2	36	㉔	2	36	㉕	3
3	㉒	3	20	㉑	2	37	㉔	3	37	㉔	2
4	㉓	2	21	㉔	3	38	㉓	2	38	㉑	2
5	㉑	2	22	㉓	2	39	㉔	2	39	㉓	2
6	㉓	2	23	㉓	2	40	㉒	2	40	㉒	2
7	㉕	2	24	㉕	2	41	㉕	2	41	㉔	3
8	㉕	3	25	㉔	3	42	㉒	2	42	㉔	2
9	㉔	2	26	㉑	2	43	㉕	2	43	㉒	2
10	㉑	2	27	㉔	2	44	㉕	2	44	㉔	2
11	㉔	2	28	㉒	2	45	㉑	3	45	㉔	2
12	㉑	3	29	㉓	3						
13	㉒	2	30	㉕	2						
14	㉑	2	31	㉒	2						
15	㉓	2	32	㉓	2						
16	㉕	2	33	㉕	2						
17	㉕	3	34	㉑	3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 II 제1차 예비평가 해설

• 공통과목 •

[1 ~ 3] 독서론

1. [출제의도] 지문에서 소개된 독서법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KWL 독서법에서 L의 단계는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새로 알게 된 정보를 정리하고, 기존에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을 새롭게 수정하는 단계이다.

[오답풀이] ① KWL 독서법은 그 효과 때문에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처음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 적합한 독서법으로 개발되었다. ② KWL 독서법은 주어진 글에 대해, 즉 글의 주제가 선택된 이후에 그 주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을 기록하는 독서법이다. 읽어야 할 글의 주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독서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KWL 독서법은 기본적인 순서가 정해져 있는 독서법이다. 다만 그 흐름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⑤ KWL 독서법은 해결되지 못한 질문에 대한 답을 다른 글에서 찾도록 유도하는 독서법이다.

2. [출제의도] 지문과 <보기>의 두 독서법을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독서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SQ3R 독서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최소한 KWL 독서법은 독서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능동적인 독서를 가능케 하는 독서법이다.

[오답풀이] ② SQ3R 독서법에는 책의 주제와 내용을 예측하여 질문을 만드는 단계가 있다. KWL 독서법에는 글의 내용을 미리 예측해 보는 단계가 없다. ③ SQ3R 독서법에는 읽은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가 있어서 자신이 읽어서 알게 된 내용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 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KWL 독서법에는 비판적 검토의 단계가 없다. ④ KWL 독서법과 SQ3R 독서법은 모두 읽기 전에 궁금한 점을 적어 두거나 질문을 만들어 두는 과정을 거친다. 알고 싶은 내용을 미리 떠올린 후 그 방향에서 글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점에서 두 독서법은 모두 자신이 알고 싶은 내용에 주목하여 글을 읽도록 유도하는 독서법이라 할 수 있다. ⑤ KWL 독서법에는 알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여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단계가 있고, SQ3R 독서법에는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읽는 단계가 있다. 즉 두 독서법 모두 배경지식이 내용 파악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독서법이라 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윤희의 독서법 역시 KWL 독서법과 마찬가지로 책을 읽을 때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때 윤희의 독서법에서 '연고자 하는 바'에 대한 생각을 기록하는 것은 KWL 독서법에서 알고 싶은 것을 기록하는 것(W)에 해당한다. 또한 읽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이 있다면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은 KWL 독서법에서 새로 알게 된 내용(L)을 기록하라는 것과 같다.

[정답풀이] '생각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윤희의 말은 책을 읽을 때 연고자 하는 바에 대해 생각하고 읽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KWL 독서법에서 목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책을 읽기 위해 화제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궁

금한 점을 기록함으로써 그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오답풀이] ① '연고자 하는 바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독서 후에 지식이 확장되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을 때 화제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목적 없이 책을 읽는 상황을 가리킨다. ③ 윤희는 읽는 과정에서 '생각이 있다면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것이 글을 읽기 전에 궁금한 점을 미리 기록해 두어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④ '기록해 두지 않으면 없어지고' 마는 것은 읽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기록으로 남겨 이를 또 생각해서 풀이하는 것은 주제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글을 읽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을 되새겨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뜻한다.

[4 ~ 9] 인문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92쪽

4. [출제의도] 두 지문의 전개 방식에 대한 학습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로크의 표상적 실재론에 대한 버클리의 반박에 이어 버클리의 관념론을 설명한 후, 버클리가 자신의 관념론에 대하여 예상되는 비판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버클리의 관념론이 해결하지 못한 한계 지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가)의 도입 문단은 마음으로부터 독립적인 외부 사물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로크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② (나)의 도입 문단은 마음으로부터 독립적인 사물의 실재를 부정한 왕양명의 견해와 마음과 외부 자연 세계의 상호 독립적 실재성을 인정한 주자의 견해를 대비하여 소개하고 있다. ④ (나)는 마음으로부터 독립적인 외부 사물의 실재를 부정하는 왕양명의 입장을 주자의 입장과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⑤ (가)와 (나)를 함께 읽음으로써 사물이 외부에 실재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유사한 논쟁을 펼친 동서양 철학자들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주자는 마음과 그것의 본성을 구분하지만 왕양명은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주자의 입장에서든 마음의 본성은 '이'이며, 왕양명의 입장에서든 마음의 본성은 '이'이다.

[오답풀이] ② 주자에게 있어 지행합일이란 깨달음을 얻은 후 그에 걸맞게 행하는 것이다. 깨우침과 실천이 하나라고 보는 입장은 왕양명이다. ③ 버클리에 따르면 돌, 나무와 같은 사물은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한다. ④ 로크에 따르면 감각 경험 즉 표상으로서의 관념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고, 외부 사물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다. ⑤ 로크에 따르면 우리가 외부 사물의 실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관념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만약에 모든 관념이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라면 로크조차도 외부 사물의 실재성을 인정하기 힘들 것이다.

6.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특정 주장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버클리에 따르면 로크는 마음으로부터 독립적인 사물의 실재를 증명하지 못하여 회의주의에 빠진다. 로크가 마음으로부터 독립적인 사물의 실재를 증명한다면 회의주의를 극복할 수 있음을 버클리에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는 다른 길도 있다. 버클리에 자신은 모든 사물이 마음 안에 있다는 관념론을 취함으로써 회의주의를 극복하는 길을 선택한 셈이다. 따라서 버클리는 사물의 실재가 증명되지 않는 한 회의주의가 극복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버클리에 따르면 로크의 표상적 실재론은 외부 사물과 마음 간의 인과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각 경험의 발생을 설명하는 데 동원되는 외부 사물의 실재성도 증명되지 못한다. 이 점이 바로 로크의 표상적 실재론이 회의주의로 귀착하는 이유이다. ② 버클리는 자신의 관념론이 회의주의를 극복한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가 보는 일상적 사물이 마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④ 버클리는 우리가 보는 일상적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는 일상적 사물이 마음 바깥에 있다는 상식을 거부하고 그것이 마음 안에 있다고 보아야 회의주의가 극복된다고 주장한다. ⑤ 버클리에 따르면 외부 사물의 실재성에 대한 가정을 통해 감각 경험의 발생을 설명하려는 로크의 시도가 실패한다. 그는 로크의 표상적 실재론이 외부 사물의 실재를 증명하지 못하여 회의주의에 이른다고 보았다.

7. [출제의도] 지문에서 소개된 특정 개념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왕양명은 마음과 그것의 본성을 구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 바깥에 사물이 없다는 '심외무물'을 주장한다. 왕양명에 따르면 '격물'은 마음의 참된 주인인 양지가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이치인 조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주자는 '격물'을 바깥의 자연 세계와 사물에 나아가 그것의 본성이자 이치인 '이'를 깨닫는 것이라 보았다. ② 주자는 사물의 본성만을 만물의 이치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이 공히 만물의 이치라고 보았다. ③ 마음 바깥에 사물이 없다고 본 왕양명에 따르면 사물은 마음 안에서 변화하므로 '격물'은 마음 안에서 변화하는 사물을 '바로잡는 것'이다. ④ 왕양명에 따르면 '격물'은 고정된 이치인 정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물을 담고 있는 마음에서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이치인 조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8.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심외무물'을 주장하는 왕양명에게 '친구'가 마음 바깥에 있는 꽃의 존재를 과연 부정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이에 왕양명은 마음 바깥의 꽃은 고요하고 마음 안의 꽃은 분명한 색깔을 띤다고 대답한다. 우리가 보지 않은 꽃은 고요하지만 우리가 보는 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정답풀이] 깊은 산속에 있는 꽃이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친구'의 말에 대해 왕양명은 그 꽃이 마음 안에서 변화하면서 존재한다고 답한다. 그런데 왕양명에 따르면 마음에는 양지가 있고, 양지는 배우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만물의

원리이다. 그 양지가 조리를 창출하는 것이 곧 도덕적 실천일 수 있다. 따라서 왕양명이 마음을 통해 만물의 이치를 배운다고 반박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배우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며 마음 안에서 이를 바로잡을 뿐인 것이다.

[오답풀이] ① 꽃을 보자마자 그 꽃의 색깔이 분명하게 된다는 왕양명의 말과 관련하여 로크는 '마음에 드러난 그 꽃'은 우리가 꽃을 보았을 때 갖게 되는 감각 경험, 즉 관념으로서, 수동적으로 얻은 것이라고 볼 것이다. ② 버클리 는 로크의 표상적 실재론이 실패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로 물질과 정신 간의 인과에 대한 좋은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든다. 즉 버클리는 물질과 정신 간에 인과가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하지 못하는 한 로크의 표상적 실재론이 거부되고 자신의 관념론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그런 경우에 자신의 관념론과 유사한 왕양명의 '심외무물' 주장도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볼 것이다. ③ 왕양명은 깊은 산속의 꽃을 보지 않았을 때 그 꽃과 '친구'의 마음이 모두 고요하다고 말한다. 버클리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의해 지각되지 않는 사물은 신에 의해 쉽 없이 지각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할 것이다. ④ 주자는 마음과 외부 자연 세계의 상호 독립적 실재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꽃이 마음 바깥에 실재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주자는 사물에는 마음의 본성인 '이'와 동일한 '이'가 본성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

9. [출제의도] 문맥상 의미가 가까운 단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언다'는 '구하거나 찾아서 가지다'의 의미로, '정보를 얻어'의 '언다'와 그 의미가 가장 가깝다.

[10~13] 사회

10.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채권자는 채무 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일방적인 의사 표시를 하여 특정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분할 채무의 채무자 각각은 채권자에게 급부 전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할된 채무만을 부담한다. ③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2명 이상인 것이므로, 채무자가 한 명이라도 채권자가 여럿이면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가 성립한다. ④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는 하나의 급부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하나의 채권 관계에서 채무자가 늘어나더라도 급부의 개수가 반드시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⑤ 사용자 책임은 사용자가 고용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사용자에게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이 고용한 이에게 피해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 져야 하는 책임이 사용자 책임인 것은 아니다.

11.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두 대상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부진정 연대 채무)뿐만 아니라 ㉡(연대 채무)도 모든 채무자들이 동일한 목적을 띤 채무를 갖는다. ㉠은 동일한 급부에 대하여 여러 채무자들이 각자 급부 전체의 이행 의무를 지므로, 모든 채무자들은 동일한 급부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갖게 된다. 또한 ㉡은 우연히 복수의 주체가 동일한 목적을 띤 채무를 갖게 된 것이다.

[오답풀이] ①㉠은 연대 채무 계약을 필요로 하지만, ㉡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우연히 외적으로 연대 채무와 비슷해진 것을 말한다. ②㉠은 특정 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가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을 미쳐 채무액을 경감시킨다. 그러나 ㉡의 경우에는 특정 채무자의 채무가 면제되어도 다른 채무자의 채무가 별개의 법률적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다른 채무자에게는 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은 동일한 급부에 대하여 여러 채무자들이 급부 전체의 이행 의무를 지므로 채무자들의 채무액이 다를 수 없다.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은 채무자들 사이에 서로 채무액이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⑤㉠과 ㉡은 모두 채무자들의 급부 내용이 중첩되므로 특정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분을 변제하면 그만큼의 채무 소멸은 다른 채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2.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D는 C에 대출해 주었으므로 C는 D에 대출금 상환 의무를 진다. 한편 A는 고용된자인 B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사용자 책임에 의거해 D에 손해 배상 채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A와 C의 채무는 별개의 법률적 원인으로 발생했지만 대출금과 관련해 D에 금전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급부 내용은 중첩되므로, 이들은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A와 C는 각각 7억 원, 10억 원의 채무가 있으므로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된, 채무자들 사이에 채무액이 다른 상황에 해당한다.

[정답풀이] A와 C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C가 대출금 중 5억 원을 변제하는 것은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된, 다액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액 채무자만의 채무액을 먼저 소멸시키고 그 나머지 만큼에 대해 모든 채무자들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채무액이 중첩되는 부분은 7억 원이며 다액 채무자인 C의 채무 중 중첩되지 않고 C만 지니고 있는 채무액은 3억 원이므로 먼저 C의 채무 10억 원 중에 3억 원이 먼저 소멸된다. 나머지 2억 원만은 A와 C 모두의 채무 소멸에 쓰이므로, C는 최종적으로 5억 원(7억-2억)의 채무만 남게 되고, A 역시 손해 배상 채무액 7억 원에서 2억 원을 뺀 5억 원의 채무만 남게 된다.

[오답풀이] ②A와 C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A와 C의 채무는 급부 내용이 중첩된다. 실제로 대출금 중 7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급부 내용 측면에서 중첩되는 부분이다. ③D의 과실이 30%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D가 B의 서류 심사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B는 A가 고용한 직원이지, D가 고용하여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④D는 B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를 하지 않아서 B는 D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A와 B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⑤A와 C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으며 급부 내용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A가 7억 원의 손해 배상 채무를 지더라도 별개의 법률적 원인으로 발생한 C의 채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C는 대출을 받은 자로서 D에 10억 원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13. [출제의도] 문맥을 고려하여 표현을 적절하게 바꾸어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대 채무는 채무자들이 채무를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모든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급부 전체를 이행하는 방식을 취한다.

[오답풀이] ① 채권의 담보력이 강화되는 것은 동일한 급부를 이행하는 사람이 많아져 급부가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③ 부진정 연대 채무에서 각 채무는 별개로 발생한 채무인데, 이는 각 채무의 법률적 원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④ N명의 연대 채무자 중 1명의 채무가 면제되었을 경우, 나머지 채무는 원래 채무에서 1/N에 해당하는 채무를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채무자들은 1/N만큼을 제외한 채무를 지게 된다. ⑤ 다액 채무자만의 채무를 우선 소멸시키는 것은 변제한 이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는 다액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채무자들에게도 다액 채무자가 변제하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급부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14~17] 기술

→ 연계 지문: 수능완성 226쪽

14.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희소 벡터나 밀집 벡터나 모두 다차원 벡터이다. 희소 벡터는 단어가 많을수록 차원이 크다. 다만 차원이 크어도 희소 벡터는 정보를 담지 못한다. 벡터 간 거리가 모두 같아서 거리 연산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② 텍스트 마이닝을 하려면 책이나 인터넷 등에 있는 문장을 모아야 한다. 즉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장들을 다량으로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③ 지문의 예시에 따르면 '개'와 '강아지'의 벡터 간 거리나 '개'와 '고양이'의 벡터 간 거리가 같다. ④ '워드 투 벡터'가 시작될 때에는 수많은 문장에서 단어들을 추려 내고 단어마다 무작위로 초기 벡터를 부여한다. 처음부터 관계 등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⑤ 최적의 벡터값을 얻기 위해 학습할 때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 동일한 모든 문장들을 매번 다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5. [출제의도] 지문에서 소개된 두 방법에 대해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원 핫 인코딩이나 워드 투 벡터는 모두 텍스트 마이닝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의 방법이다. 즉 벡터들에서 활용 가능한 의미를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보기 힘들다. 텍스트 마이닝의 활용 목적에 따라 단어들을 다차원 벡터로 변환하는 방법인 임베딩 모델이다. 의미를 추출하는 것은 텍스트 마이닝이다.

[오답풀이] ① 워드 투 벡터는 차원을 사전에 정해 놓는다. 이와 달리 원 핫 인코딩은 단어가 많을수록 차원이 늘어난다. ② 원 핫 인코딩은 거리 연산이 무의미해서 단어 간 유사성과 같은 정보를 담지 못한다. ④ 워드 투 벡터는 모든 실수를 벡터의 요소로 활용한다. 이와 달리 원 핫 인코딩은 0과 1만 사용한다. ⑤ 원 핫 인코딩이나 워드 투 벡터는 컴퓨터가 텍스트 마이닝을 할 수 있도록 단어마다 벡터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16. [출제의도] 지문에 언급된 방법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 따르면 규칙에 따라 학습률을 조정하는 방법은 학습률을 작게 하여 유지할 때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벡터의 품질이 나

쁜 상태, 즉 초기에는 학습률을 크게 하여 최적값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 다만 학습률이 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최적값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초기에 학습률을 크게 하고 세대를 거치면서 학습률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면 최적의 학습 결과를 얻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문장이 많을수록 여러 세대에 걸쳐 학습을 해야 하지만, 문장의 개수에 따라 학습률을 달리 설정할 이유는 없다. ② 하나의 문장 학습이 끝날 때마다 학습률을 조정하면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 ③ 적절한 학습률이라는 것도 없고, 일정하게 학습률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도 않다. ④ 세대가 끝날 때마다 품질을 계산하여 적정 수준의 학습률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학습률 조정은 물론 백터의 품질을 계산할 때마다 시간이 소요된다. 즉 이렇게 하면 점차 학습률을 낮추는 방법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17.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위드 투 벡터' 방법으로 10번의 세대 학습을 거쳐 여섯 개의 단어에 대해 벡터를 얻은 상황이다. 벡터값을 통해 지금까지의 학습 상태가 최적의 벡터값이 부여된 상황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답풀이] '도쿄 - 일본 + 한국'을 연산하여 얻은 벡터는 (-2, -1)이다. 이것은 '서울'의 벡터와 같다. 지문에 따르면 '도쿄 - 일본 + 한국 = 서울'과 같이 단어 간 연산으로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은 최적의 벡터값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다. 즉 '도쿄 - 일본'을 연산하여 얻은 벡터가 '서울 - 한국'을 연산하여 얻은 벡터가 같아서 '도쿄 - 일본 + 한국 = 서울'을 표현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10번의 세대 학습으로 최적의 벡터값을 얻었음을 지지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보기 1>에서 학습에 사용된 문장이 100개임을 알 수 있다. 학습에 사용된 문장이 1000개였다면 10번보다 더 많은 세대를 거쳐야 한다. 최적의 벡터값을 얻기 위해서는 학습해야 할 문장이 많을수록 여러 세대에 걸쳐 학습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② '파리'의 초기 벡터가 (1, 2)였고 학습률이 작은 값으로 유지되었다면 (1, 2)가 조금씩 조정되어 (-1, -1)이 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어 왔을 것이다. 즉 '파리'의 벡터가 학습도중에 그와는 다른 방향으로 벌어져서 (2, 2)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③ '한국 - 서울'을 연산하여 얻은 벡터는 (3, 3)이고, '일본 - 도쿄'를 연산하여 얻은 벡터도 (3, 3)이다. 이것들은 국가와 해당 국가의 수도 관계에 있는 단어를 연산한 것이므로 두 연산 결과가 같다는 것은 최적의 벡터값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 ④ 중심 단어와 인접 단어로 볼 때 '서울'과 '수도', '파리'와 '수도', '도쿄'와 '수도' 등이 밀접한 관계라 할 수 있다. '한국'과 '프랑스'는 공히 국가라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밀접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관계에 있다. 또한 이 학습은 국가와 수도를 범주로 하는 최적의 벡터값을 얻기 위한 목적의 학습이고 국가 관련 단어들이 서로 가깝고 수도 관련 단어들이 서로 가까운 것으로 보아, 학습의 결과가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과 '서울'의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하는 추가 학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한국'과 '서울', '프랑스'와 '파리', '일본'과 '도쿄'의 거리가 다 같아서 문제가 없는 상태이다.

[18 ~ 21] 현대소설

→ 작가연계: 이호철, 「판문점」(수능특강 237쪽)

18.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작품은 3인칭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으므로 서술자는 이야기 바깥에 존재한다. 그런데 지문의 앞부분을 보면 인물들이 주고받는 말이나 행동을 이야기 내부에 있는 서술자가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조금 더 진행되다 보면 '진수'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그가 이 상황들을 쪽 관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가령, '이편'이란 용어가 사용된 것도, '이편'이라고 지칭된 사람들이 '진수'의 입장에서 같은 남쪽 편이었기 때문이다. 즉 서술자가 '진수'라는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상황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관찰하는 것처럼 진술되어 있는 것이다. 지문의 중간 이후 '진수'와 남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 사이의 대화에서도 '진수'를 초점 인물로 삼아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야기 바깥의 서술자가 '진수'의 시각을 통해 상황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③ 이야기 내부 서술자가 등장하려면 1인칭 서술이어야 하는데 이 작품은 3인칭 서술이다. ⑤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되었다고 하려면 한 인물의 내면 생각이 길게 펼쳐져야 하는데, 지문에서는 그럴 만한 인물의 생각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19.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땡땡막한 사람'이 '안경잡이'와 치마저고리를 입은 북한 여기자의 대화에 개입하는 것은, '안경잡이'가 시아버지 모시기가 고생되지 않으나, 자신은 누님 고생 생각하면 밤잠을 잘 못 잔다고 이야기한 직후이다. 이 농담에 대해 북한 여기자는 단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음을 겨우 참아 내고 있는데, '땡땡막한 사람'이 불쑥 끼어들어 '당신은 왜 그렇게 허풍이 심하오?'라고 개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치마저고리 입은 여기자의 요청으로 '땡땡막한 사람'이 '안경잡이'와의 대화에 개입했다는 것은 지문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안경잡이'가 인사를 하자 치마저고리를 입은 북한 여기자는 '두 눈이 감기게 웃으면서 반색을 했다'. '두 눈이 감기게' 웃었다는 것은 두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활짝 웃었다는 것을 뜻한다. ⑤ 남색 원피스의 여성은 진수가 타락의 징조에 대해 변호를 하자, 그건 비겁한 짓이라면서 '큰 가능성에 대한 큰 지향', '큰 결론' 등이 필요하다고 자기주장을 늘어놓은 뒤,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며 진수의 의견을 묻고는 그에 대해 진수가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곧바로 '참, 저 서울은 어때요?'라는 '탄소리'를 한다. 이는 진수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화제를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대화 양상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표면적으로는 남한 사람들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을 담고 있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 웃으면서 반색을 하며 하는 말인데다가 ㉡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또한 전혀 험악하지 않고 농담으로 받아넘기고 있으므로, 진짜 비난의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니며, 나아가 적대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답풀이] ② 시아버지를 모시는 문제는 당시 남북한 할 것 없이 며느리들에게 주어진 힘든 일 중 하나였다. 그래서 '안경잡이'는 이를 실마리로 삼은 농담을 건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상대방이 웃음을 참아 내고 있는 것을 보면, 별다른 거부감 없이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은 상대방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속한 남한 사회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말로서, 남한 사회가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고 여기는 북한의 시선이 반영된 말이다. 또한 '이편에서 간 사람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리자' '쓰겁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로 인해 분위기가 상대방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넘어가니까 멋쩍어하며 하는 말이라는 뜻이다. ⑤ ㉤은 '무엇이 덕지덕지 껴묻'은 '저런 사람'과, '저런 사람'을 재미있어 하는 대화 상대방(진수)을 한통속으로 묶어 비판을 한 뒤 그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을 묻는 물음인데, 상대방에 대해 비판한 뒤 그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물음이므로 당연히 자기 생각이 옳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진수가 '당신들'과 '우리네'를 대비하여 답을 하는 것을 보면, ㉤의 물음 자체가 이쪽과 저쪽의 체제를 비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곡예사 같은 몸짓, 타락의 징조 운운하는데, 그것이 벌써 당신 머릿속의 어느 함정을 뜻하는 거죠.'라는 진수의 말을 볼 때, 진수는 우선 '타락'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진수가 '타락의 징조'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책임을 개개인에게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타락의 징조'라는 것에 대해 그것이 경직성을 풀어 주는 부드러움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체주의적인 관점에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도, 개개인의 일탈에 대한 사회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가 아니다.

[오답풀이] ② 진수는 '저런 사람'의 행태에 대해 그냥 웃어넘기는 데 반해 남색 원피스의 여성은 '실속 없이 곡예사 같은 몸짓만' 한다며 비난하고 아울러 그를 재미있어 하는 진수에게서도 '타락의 징조'를 찾아내고 있으니, 두 사람의 현격한 차이는 곧 남과 북의 사고방식이 이질화되는 현실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2 ~ 27] 고전시가 - 수필 통합

- 연계 지문: 송순, 「면앙정가」(수능완성 224쪽)
- 작가연계: 이색, 「국화를 대하매 느낀 바 있어」(수능특강 31쪽)
- 조지훈, 「무국어」

22.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화자는 '도연명'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가짜 도연명'이라 표현했다. 이는 자신이 '도연명'처럼 살겠다고 마음먹었으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화자가 세상사에 연연하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지내는 삶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에서 화자는 '악양루 상의 이태백'보다 자신의 '호탕 정회'가 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자연을 벗하여 한가하고 호탕한 흥취를 누리는 삶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가)와 [A] 모두 자신의 과거에 대한 화자의 회상을 담고 있지 않으며, 인간사의 덧없음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⑤(가)와 [A]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만, 해소하기 어려운 의문으로 인한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3. [출제의도] 핵심이 되는 소재를 중심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에서 글쓴이는, 닭들이 '국화'의 꽃과 잎을 모조리 먹어 치웠던 과거 서울 성북동에서의 상황과, 닭들이 '국화' 그늘 아래서 별을 쫓으며 조는 현재 시골에서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사람이 콩깍지만 먹고 살거니 미물이 꽃을 먹는 풍류를 아니 배울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은 사람이 콩만 먹고 사니 미물인 닭 역시 꽃을 먹는 '풍류'를 배우게 되었다는 말로서, 성북동에서 살던 당시에 사람도 닭도 먹을거리가 부족했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풍류'는 배움의 상황을 가리키는 반어적 표현인 것이다. 꽃을 먹는 미물의 풍류를 글쓴이가 배우겠다는 뜻도 아니고, 시골에서 국화 그늘을 즐기고 있는 닭들을 보며 하는 말도 아니다.

[오답풀이] ①, ② '동쪽 울타리'에 '국화'를 심은 것은, 국화를 동쪽 울타리에 심어 두고 남달리 사랑했던 도연명처럼 세상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고자 하는 지향을 드러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화자는 어쩌다 '동쪽 울타리'를 보고 '국화'를 마주하게 되자, 그러한 지향과 달리 '대하는 것마다 점점 불평만 생기는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화자는 '국화'를 마주고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성찰하게 된 것이다. ⑤ '국화가 글쓴이에게 '슬픔을 더해 준다'는 말은, 자신이 한가로이 '국화'가 주는 흥취를 즐길 처지가 아님을 '국화'를 대하면서 새삼 절감하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 혹은 '국화'를 시들게 할 추위가 곧 닥칠 것을 떠올리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둘러싼 시대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글쓴이는, '국화가 없으면 낙엽이 창살을 휘몰아치는 기나긴 가을밤을 어떻게 견디랴'라는 말에 나타나듯, 늦가을 '서릿발'에 '더욱 청초해 가'는 '국화' 곁에서 위안을 얻고 있다.

24. [출제의도] 시구의 표현상 특징과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화자는 영탄적 어조로, 넓은 천지를 바라보며 한가하게 세월을 보내는 자신의 삶이 마치 '회황' 때의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은거 생활이 만족스러움을 뜻하는 것이지 태평성대를 구현하는 일에 나서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③ '번로'하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어휘이지만, 이 구절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앞에서 열거한 일들이 어느 하나도 버리고 싶지 않게 즐거운 일이라는 것이다. ④ 산수를 둘러보며 즐기고 다닌 청려장이 다 무디어 간다는 말로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자신의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중략 앞에서 면양정 '원근'의 '천암만학'에 머물러 있는 자연물들, 곧 '흰 구름'과 '연하'와 '산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중략 이후에 나타난 바, 면양정에 거처한 화자의 모습과 대응된다. 화자는 이 자연물들이 다채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그것들이 '사양과 섞어지어 세우조차 뿌리는구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하강의 심상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그러한 심상이 이들 자연물이 환기하는 주된 정조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작품에 나타난 자연물의 모습을 부정적인 의미와 결부할 여지는 없으며, 이후에 나타난 화자의 모습에서 떠올릴 수 있는 감정도 '근심'이나 '시름'과는 거리가 멀다(벗들과 어울려 노래와 악기 연주와 취흥을 즐기니 근심이나 시름이 있을 리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므로 자연물의 하강 이미지와 인간의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어 자연과 인간 내면의 조응을 나타내려 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면양정 주변 산들을 자기 집인 양 들락날락하는 '흰 구름' 등의 모습과, 그 산들에 앉아 보고 걸어 보는 화자의 모습이 잘 조응한다고 볼 수 있다.

26. [출제의도] 공간을 나타내는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을 떠나왔는데도 자신이 여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한다는 말에서, ㉠이 이전의 번잡한 삶을 표상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물론 화자의 현재 삶이 '겨를 없다'고 한 것은, 실제로 잡다한 일에 치여 삶의 여유를 갖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즐길 일이 많음을 나타내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다. 이러한 현재의 삶에 화자가 만족하고 있음을 보면, 그가 ㉠에서의 번잡한 삶을 지양한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나)의 화자는 자신이 면양정 주변의 자연을 즐기느라 바빠서, 그곳으로 오는 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여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구절은, 화자가 굳이 다른 사람들과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을 도덕적 차원의 의미와 관련된 시어로 이해할 근거는 없다.

2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는 할 만한 일도, 대화할 상대도 없이 지루하게 세월을 보내던 글쓴이가, '소슬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다른 느낌을 받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갑자기 '세월'이 '줄달음질 치는 듯하였다'는 이 구절은, 가을이 와서 국화가 피자 그를 벗 삼게 되어 외로운 마음에 위안을 느낄 수 있었다는 의미이자, 언제 국화가 지는 계절(겨울)이 올지 모른다는 초조감으로 인해 가을의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국화는 가을 서리를 견디며 아름답게 피어 있지만, 계절이 더 엄혹해지면 결국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글쓴이는, 국화와 갈대꽃이 '설움'을 하소연한다고 하고, 국화의 '가냘픈' 마음 혹은 '칼날 같은 마음'을 말하면서, '서릿발'에 더 청초해지는 국화의 모습에 '서글퍼졌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계절의 심상은 점점 더 혹독해져 가던 일제 말기의 정세를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를 암울한 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글쓴이의 확신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보기>를 참고하면 '하는 수 없이 낙향'했다는 말에서, 글쓴이의 낙향이 일제하에서 겪은 고초로 인한 것임을 읽어낼 수 있다. ⑤ <보기>를 참고하면, '사람이 콩깍지만 먹고 살거니'라는 구절은, 식량을 포함한 모든 물자가 군수품

에 우선 배당되던 일제 말기 전시 총동원 체제하의 식량난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8 ~ 30] 현대시

→ 연계 지문: 문태준, 「산수유나무의 농사」(수능특강 233쪽)

→ 작가 연계: 서정주, 「풀리는 한강 가에서」(수능특강 95쪽)

28. [출제의도] 두 작품의 공통점을 적절히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화자의 심리적 지향이 투영된 '기러기'와 보잘것없지만 악착스레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표상하는 '땀들레'를 통해 하늘과 지상을 대비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삶에 대한 화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한편, 현세적 삶을 수궁하려는 태도를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다. (나)는 산수유나무에 핀 꽃과 나무 아래 드리운 그늘을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으로 수직적으로 대비시켜, '땅'에 드리워진 '그늘'의 의미와 결부하여 삶에서 마음 수양이 중요하다는 화자의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③ (가)의 '깨치며'가 얼음장을 깨뜨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이에서 환기되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통해 부정적인 상황에 맞서는 화자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끌어모으면'은 시적 대상인 '그늘'을 긍정하는 것이지 부정적인 상황에 맞서려는 의지와는 무관하다. ⑤ (나)의 '노란 꽃'은 생동감 넘치는 봄과 관련된 심상이다. 하지만 (가)의 '황토 언덕'은 이와 달리 초목이 없는 풍경으로서, 강물이 풀리는 봄이 왔으나 여전히 험벗고 힘든 현실의 모습을 나타낸다. '황토 언덕'을 '꽃상여', '폐과부의 무리들'과 같이 삶의 애상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들과 함께 열거한 후 그것들을 '또 한번 더 바라보라 함인가'라고 진술하고 있는 5연의 문맥으로 보아도, '황토 언덕'이 생동감을 형상화한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9.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C]의 네 행은 3음보 율격으로 읽기에 적합한 의문문들이다(무어라/강물은/다시 풀리어 ~ 또 한번/고개 숙여/보라 함인가). <보기>를 참고하면, 이 두 연의 대칭적 배치 역시, 계절의 변화로 강물이 풀리는 것을 보면서 애환으로 가득 찬 삶을 수용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해 준다. 화자는 누추한 현실을 갈등 어린 물음 가운데 어렵사리 수궁하고 있지만, 계절의 변화를 삶의 변화로 수용하지 못하는 반감을 드러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② 화자는 봄이 와서 강물이 풀리기 전에는, 괴로운 세상살이에 대해 한겨울 하늘의 '기러기같이' 자기만의 내면에 갇혀 모진 마음으로 견디며 살아가려 하였다. <보기>를 참고할 때, [B]는 이런 화자의 마음을 날카롭고 센 음운들의 반복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어름쟁', '깨치며'뿐 아니라 '기러기같이'의 '같이' 역시 [가치]로 발음되어 이러한 효과를 갖는다.). ④ [D]는 '황토 언덕/꽃상여/폐과부의/무리들'과 같이 4음보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를 세계의 행으로 나는 것은, 시구를 여러 행으로 나누면 읽는 속도가 느려지고 시구에 거론되는 대상들의 존재감을 더욱 또렷하게 느낄 수 있으므로, 그러한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탄력적인 행갈이를 통해, 시인은 대상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이다. ⑤ [E]는 수

미상관을 활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이다. 소리 단위들의 반복과 질서 있는 배치에 대해 설명한 <보기> 내용에 부합하는 부분으로, 삶의 애환에 대한 심화된 인식, 곧 삶의 애환이 삶의 근거가 된다는 인식을 내비치는 한편 작품에 형식적 완결성을 부여한다.

30. [출제의도] 시어의 성격을 바탕으로 작품의 비유 체계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좁쌀’은 작지만, 작은 좁쌀들이 모여 이룬 ‘좁쌀다섯 되’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뜻한다. ‘끌어모으면’과 ‘벌써’라는 표현들 속에 이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 시인은 좁쌀처럼 자잘한 산수유 꽃의 크기에 착안하여, 산수유 꽃이 활짝 핀 만큼 그늘 역시 풍성하다는 점을,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마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반성이 드러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은 산수유 꽃의 노란 빛깔을 그 ‘그늘’에 전이시킨 감각적인 표현이다. 선생님의 안내에 제시된 것처럼 그들이 ‘마음’의 비유라면, 그들의 노란 빛깔은 숨겨진 내면의 아름다움을 암시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②㉡의 ‘옥말려든다’는 마음의 품이 좁아진다는 뜻이므로, 배려심이 부족해진 세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시선을 함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화자는 그러한 세태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깊은 마음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산수유나무가 어떻게 마음을 수양하는지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31 ~ 34] 고전소설

→ 연계 지문: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수능완성 203쪽)

31.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낭자 살 뜻이 전혀 없어 신세 가련한지라’, ‘그 애달픈 모습은 눈으로 차마 보지 못할러라’에서 서술자의 개입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서술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③ ‘월궁의 선녀’로 ‘옥련동에서 귀양살이하는’ 숙영 낭자가 선군의 ‘몽중에 왕래하는’ 장면을 볼 때, 꿈을 삽입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과거를 보러 떠났지만 몰래 돌아온 선군을 타일러 돌려보낸 일을 숨김으로써 시아버지의 오해를 사게 된 경위가 숙영의 발화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32.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상공은 숙영이 거처하는 ‘규중에 외인이 출입’한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 범연히 다스리랴?’라고 말하며 하인들에게 숙영을 ‘엄하게 다스려 매질’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선군은 ‘꿈에 본 낭자를 잊지 못하여’ 실제로 병이 들었다. 숙영이 병든 선군을 걱정하여 약을 주는 모습에서도 선군의 병이 꾀병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숙영이 ‘낭군의 병이 점점 중하고 가세 빈한’함을 걱정하여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 선군의 꿈에 나타나 ‘금동자 한 쌍’을 건넨 것이지, 선군이 숙영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아니다.

33. [출제의도] 특정 인물의 두 발화를 적절하게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의 ‘이 같은 누명을 입히옵고’와 [B]의 ‘이렇듯이 누명으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A]와 [B]는 모두 상대가 상황을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어리석은 소견에 행여 부모 꾸중 있을까 두려워’라며 자신을 낮추는 태도만 드러나 있을 뿐, [B]에서 상대를 부도덕하게 여기는 태도는 찾을 수 없다. ③ [A]와 [B]는 모두 주변 인물이 아니라 상대에게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고 있다. ④ [B]에서 숙영은 그동안 숨겼던 사실을 실토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을 뿐 옛말을 근거로 삼아 상대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선군이 꿈에서 ‘선녀’를 만났다고 말하자 상공은 선군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한 선녀가 내려와서’ 말을 전했던 일을 떠올리면서 그 선녀가 ‘과연 숙영’이라고 말한다. 즉 상공은 꿈에서 ‘선녀’를 만났다는 선군의 말을 믿은 것이다. 다만, 이후 상공은 ‘꿈은 모두 허사’라며 ‘그 낭자는 생각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처럼 초월적 존재와 관련된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에서,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쇠퇴해 갔던 당대의 시대상을 엿볼 수는 있다.

[오답풀이] ② 숙영이 꿈속에서 선군의 병을 고치기 위해 세 가지 약을 주었다는 사실은 천상 존재의 초월적 능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천상 존재 숙영이 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선군의 ‘병세가 더욱 중’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천상 존재의 능력이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숙영은 선군의 병을 고치고 나아가 곤궁한 그의 가세를 일으키려는 목적에서 선군에게 ‘금동자’와 ‘화상’을 건네었고, 그 결과 ‘선군의 병은 차도가 없’었지만 ‘가세 크게 일어났다’. 이는 천상적 존재의 힘이 제한적으로나마 발휘되는 양상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재상이 규중에 외인이 출입함은 만사무석’이라는 상공의 말은 현실 질서의 윤리 규범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이를 내세워 상공이 천상에서 내려온 숙영을 매질하게 하는 장면은, 현실 질서를 대변하는 지상적 존재와 천상적 존재 간의 갈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숙영낭자전」은 천상에서 하강한 며느리가 현실의 질서를 대변하는 시아버지와 빛의 갈등을 서사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상공의 의심으로 숙영이 ‘자결’까지 결심한다는 것은 천상에서 하강한 인물이 현실 질서를 대변하는 인물에 의해 패배를 경험하는 서사 구조를 엿보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선택과목 - 회법과 작문 •

[35 ~ 37] 화법

→ 연계 지문: 수능특강 231쪽

35. [출제의도] 발표에 관한 설명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발표자는 ‘지금까지 국가 등록 문화재 ~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라고 하여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발표에 반영된 발표 계획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발표에서 문화재 등록을 신청하려는 문화재 소유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언급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저는 오늘 근현대에 만들어진 문화재가 주된 대상인 국가 등록 문화재 제도를 소개하려 합니다.’라고 국가 등록 문화재 제도의 소개가 발표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② ‘이러한 지정 문화재 제도의 한계로 인해 국가 등록 문화재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라고 지정 문화재 제도의 한계가 국가 등록 문화재 제도를 만들게 된 배경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③ ‘지정 문화재와 달리 ~ 등록 절차가 시작됩니다’, ‘지정문화재와 다른 ~ 자유롭다는 점입니다.’라고 국가 등록 문화재의 특징을 지정 문화재와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다. ⑤ ‘(사진을 보여 주며) 이 사진의 자동차도 ~ 한 대이죠.’라고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자동차를 시각 자료로 보여 주고 있다.

37. [출제의도] 발표를 들은 청중의 반응을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 1’은 ‘그런데 문화재 위원회는 ~ 판단하는 것일까?’라고, ‘학생 3’은 ‘우리가 지금 ~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을까?’라고 추가적인 궁금증을 떠올리고 있다.

[38 ~ 42] 화법 - 작문 통합

→ 연계 지문: 수능특강 174쪽

38. [출제의도] 대화 참여자들의 발화 의도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주회’의 ㉠의 발화는 앞서 ‘윤아’가 ‘규제를 강화할 경우 개인 방송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거라는 점’을 언급한 데 대해, 그 이유를 짐작하며 이야기하는 발화이다. ‘윤아’가 말한 의도 자체에 대해 추론하는 발화가 아니다.

39. [출제의도] 대화에 나타난 표현 전략과 대화 원리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B]에서 ‘윤아’는 ‘손을 내저으며’라는 ‘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사용하며 ‘민재’의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라는 말에 대해 ‘아니야.’라고 답하고 있다. 그러면서 ‘네 일정을 먼저 확인했어야 했는데, 내가 미리 확인도 안 하고 부탁 먼저 했어.’라고 하여 ‘상대를 배려하며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말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② [A]에서 ‘윤아’는 ‘차분한 목소리로’라는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 내가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잖아.’라고 하여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어 말하(㉤)’고 있다.

40. [출제의도] 대화의 내용이 학생의 초고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2문단의 둘째 문장에는 개인 방송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활동 1]에 언급된 뉴스 보도를 활용한 내용이 아니다. (가)에서 ‘윤아’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인터넷 개인 방송 규제 강화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41. [출제의도]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비평문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을 비판할 근거로 ‘개인 방송에 대한 규제 강화가 실질적 효

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⑤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42. [출제의도] 고쳐 쓴 글에 반영된 학생들의 조언을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주희'가 작성한 초고인 [C]와 고쳐 쓴 글인 <보기>를 비교해 보면 [C]에 나타나지 않았던 '정부는'이 <보기>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지원해 나가야 하는 주체인 '정부'가 드러나도록 수정한 것이다.

[43 ~ 45] 작문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236쪽

43. [출제의도]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 초고에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술 지식이 학술지에 게재되는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검증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전통적으로 학술 정보는 책 형태의 학술지에 게재되어 공개되어 왔고, 오늘날에는 이에 더해 인터넷 학술지도 발간되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44. [출제의도]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글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교지의 예상 독자인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오픈 액세스를 통해 전문적인 학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자신의 진로나 흥미와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해 ~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라며 오픈 액세스의 활용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권유하고 있는 ⑤가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글을 보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의 자료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학술 정보가 오픈 액세스로 제공되고 있어 세계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문의 3문단에 제시된 '전 세계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픈 액세스가 활성화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이다. '공공 기금으로 생산된 학술 정보를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는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으며, 4문단 또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④ 3문단에는 연구자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 연구 성과물의 가치 상승이 제시되어 있다. ㄴ-2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얻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인 '인지도와 영향력이 향상됨'을 추가할 수 있다. ⑤ ㄷ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후 오픈 액세스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오픈 액세스 학술지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4문단의 '오픈 액세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보완할 수 있다.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35 ~ 39] 언어

35. [출제의도] 문법적 표지에 의해 나타나는 상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69쪽

'-고 말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내 실현됨을 나타내는 말이다. '할 말이 없어서 그저 웃고 말았어.'는 완료상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어미 '-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쳐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진행상을 나타낸다. ③

'-어 가다'는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어떤 기준점에서 멀어지면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말.'로, 진행상을 나타낸다.

36. [출제의도] 국어의 상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52쪽

'올다'는 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행위가 다 끝나야 의미가 성립하는 어휘가 아니기 때문에 과정 동사에 해당한다. '핑핑'이라는 부사는 [순간성]이나 [완성성]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으므로, '핑핑 올다'의 '올다'가 [+순간성]을 지닌다는 진술은 잘못됐다. '앉다'는 그 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뤄지므로 순간 동사에 해당한다. 하지만 부사 '느릿느릿'이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의 폭을 넓혀 주므로, '느릿느릿 앉다'의 '앉다'는 [-순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③ '깜빡이다'는 '-고 있다'에 의해 동작의 반복성을 환기하게 되므로 순간 동사이지만 '-고 있다'와 결합할 수 있다.

37. [출제의도] 최소 대립쌍과 음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51쪽

'외증'과 '위증'은 다른 모든 조건은 같고 '외'와 '기'에 의해서만 의미가 서로 달라지므로, 두 단어는 최소 대립쌍을 이룬다. 이를 통해 '외'와 '기'라는 두 음운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꿀'과 '꿀'은 음운의 개수가 서로 같다. 둘은 최소 대립쌍을 이룬다. ② '꼭일'과 '논일'은 두 개의 소리가 다르므로 최소 대립쌍을 이룰 수 없다. ⑤ 초성의 'ㅇ'은 음가를 지니지 않아 음운으로 기능하지 못하므로, '알력'과 '달력'을 최소 대립쌍으로 설정할 수 없다.

38. [출제의도] 관용 표현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02쪽

㉠의 '앞뒤가 맞다'는 '이야기 따위가 이치에 맞고 조리가 있다.'라는 의미로, ㉡의 '머리가 굳다'는 '기억력 따위가 무디다.'라는 의미로, ㉢의 '가슴에 새기다'는 '잊지 않게 단단히 마음에 기억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세 표현 모두 본래 단어가 가지고 있던 의미와는 다른 관용적 의미로 쓰였다.

[오답풀이] ⑤ ㉠의 '가지를 치다'와 ㉡의 '눈을 돌리다'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쓰였다. 관용 표현으로 쓰일 경우, '가지를 치다'는 '하나의 근본에서만 갈래가 생긴다.'의 의미로, '눈을 돌리다'는 '관심을 돌리다.'의 의미로 쓰인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이 드러난 단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80쪽

'물근(맑은)'에서 종성의 'ㄱ'을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어간의 모음과 모음 조화를 고려해 어미 '-은'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뜨들(뜻을)'에서 종성의 'ㄷ'을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체언의 모음과 모음 조화를 고려해 조사 '을'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굴그며(굴으며)'에서 종성의 'ㄱ'을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어간의 모음과 모음 조화를 고려해 어미 '-으며'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0 ~ 42] 매체 1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72쪽

40. [출제의도] 제시된 매체의 특성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댓글은 해당 기사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기사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사의 내용을 전파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41. [출제의도] <보기>를 활용하여 보도 윤리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기사에는 공유 자전거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이를 지정 거치대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보행자의 입장과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되 요금 할인을 통해 이용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업체 측의 입장을 각각 제시하였다. 이는 공유 자전거 운영 방식을 둘러싼 갈등 상황과 관련된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뤄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2. [출제의도] 제시된 매체를 활용하여 다른 매체로 재생산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메모에 따르면 넷째 카드에는 이용자들이 공유 자전거의 지정 거치대임을 알 수 있도록 관련 표지판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④에는 지정 거치대의 위치와 관련된 지도 애플리케이션 화면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3 ~ 45] 매체 2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78쪽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정보 구성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텔레비전 뉴스로, '[장면 2]'에서는 주상 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난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텔레비전은 영상 매체로, 현장감과 생동감 등이 두드러지는 영상 자료를 통해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재 현장을 담은 영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가)가 사실적이고 현장감이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②의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가)에 제시된 상가 이용객의 인터뷰를 화재 사건에 대한 상가 이용객의 반응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한정된 범위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텔레비전 뉴스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③ 최근에 일어난 화재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가)이다. ④ (가)와 (나) 모두 수용자가 제기한 여러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고 있지 않다. ⑤ 화재 시 행동 요령에 대한 정보를 소방 당국과의 인터뷰로 전달하고 있는 것은 (나)가 아닌 (가)이다.

44. [출제의도] 매체 자료에 나타난 언어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는 '진화되었고(진화되다)'라는 피동 표현이 쓰였다. 그러나 '진화'된 대상인 '불길'과 '진화'한 주체인 '소방 당국'이 모두 드러나 있다.

45. [출제의도] 표현 방법을 중심으로 두 개의 매체 자료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화재 경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러 유형의 비상벨 소리들을 음향으로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 음향으로 전달하고 있는 비상벨 소리는 '화재 경보 비상벨 소리' 하나이다.